

## 시대를 앞서는 지성, 세계를 향한 도전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홍보실

### ■ 시대를 앞서는 지성, 세계를 향한 도전

성·신·의(誠信義)를 교시로 1946년 상허 유석창(常虛 劉錫禎) 박사에 의해 설립된 건국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충주캠퍼스에서 2만 4천여 재학생과 1천여 교직원들이 상아탑의 불을 밝히고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2003학년도 현재 19개 단과대학과 12개 대학원, 13만 동문에 이르는 매머드 대학으로 발전했다.

2003년으로 개교 57주년을 맞은 건국대학교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의지와 구성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캐치프레이즈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건국대학교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 ■ 2006년,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도약

건국대학교의 최근 성장속도가 눈부시다. 2006년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국내 10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내실화 작업이 한창으로, 국내 많은 대학들이 재정악화와 대입정원 역전 등 대학교육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발전의 템포를 놓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학생중심의 학사운영과 교육 특성화를 통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안팎의 평가다.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대학개혁과 구조조정, 학사제도 개편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해외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공동학점 인정, 공동학위 수여 등 글로벌 캠퍼스 구현을 위해 전 구성원이 나서고 있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와 신규 잠재력 개발, 국고지원금 및 산업계 지원금 확보 이외에 대학 전반의 조직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13만 건국가족과 함께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펴 나가고 있다.

### ■ 건국 중흥의 대역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새로이 착공에 들어간 초대형 건국대학교병원(825병상 규모 국내 5위권), 건국 Star City로 명명된 캠퍼스 남측 부지 개발사업 등은 건국학원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대학은 물론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역 주변 3만여평에 최고 58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 6개 동



건국대학교 전경 ▲

과 쇼핑몰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Star City 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 수익 중 1천 600억 원을 건국대학교 병원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고 이후 업무용 빌딩 임대수익 중 매년 20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법인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의과대학 부속 충주병원, 건국우유, 건국햄, 건국빌딩 등의 수익사업체도 학교발전을 위한 든든한 후원역이다.

또한 Star City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새천년관과 외국인 교수와 학생을 위한 국제학사를 신축했으며 연내 완공예정인 생명과학관에 이어 산학협동관, 제2학생회관 건설사업 등 학교의 지도를 바꿔나가는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이같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측에 대한 신뢰에 힘입어 각 단과대학과 학과는 물론 행정

부서 직원, 동문들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학교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날로 가속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제15대 정길생 총장은 그동안 쌓아 온 대학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교육하는 대학, ▲ 교수의 연구가 국제화 수준에 도달한 대학, ▲ 학교 행정에서 강의까지 정보화가 완성된, ▲ 대학 학교 캠퍼스가 국제화의 베이스캠프화되는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 ■ 수요자 중심의 학사운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1전공 외에 또 다른 희망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다전공·부전공

제를 통해 재학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1회에 한해 전과 및 지원학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관 1층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종합서비스 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병무, 유학상담 등 졸업생 및 재학생,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 장학금 혜택도 풍부해 연간 재학생의 40%가 넘는 1만 3천여명에게 성(誠)신(信)의(義) 장학금 150여 종에 걸쳐 1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 대학특성화 사업 박차

21세기 국가의 핵심 전략인 IT, NT, BT, CT, ET, ST 등 6T를 집중 육성하여 미래 과학사회에 능동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의과대

학을 의료인력의 고급화와 새로운 의료질서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격 개편했다. 건국대는 이에 발맞춰 2005년 말 완공을 목표로 매머드급 대학병원 건설에 들어갔다. 국내 5위권 병상을 가진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최현대식 병원이다. 이는 신설 예정인 의생명과학연구소와 연계한 생명의학관련 단과대학인 의과·수의과·생명환경과학대학·축산대학의 연구역량이 결집된 생명과학연구단지로 본격 육성된다.

이밖에 2005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경영 비즈니스스쿨 및 90년대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아남전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과의 학연산 연계프로그램은 날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2004학년도에는 서울캠퍼스에 기존의 디자인학부, 음악학부 및 영상학과 등으로 구성된 예술대학을 신설하는 등 예술·문화분야의 육



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 대학 인적 인프라 확충

우수 신입생 확보 못지 않게 훌륭한 연구, 교수진의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100여명에 이르는 우수교원을 채용하고 오는 2008년에 이르러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교육, 연구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현실로 옮겨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올 3월에도 51명의 신입교원을 임용한데 이어 2학기에 80여명의 신입교원을 초빙한다. 특히 교수자질 향상을 위해 SCI 등 공인 저널에 논문 발표 의무화, 국내외 교수를 차별없이 임용하고 특히 원어강의 교수 확충, 교원 연구 및 강의 평가를 활성화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고 있다.

### ■ 대학을 국제화의 베이스캠프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국내 대학보다는 미국 등지의 명문대로 곧바로 유학을 떠나는 학사유학을 선택하고 있다. 우수 고교생들의 몸과 마음은 세계로 향해 있는데 반해 국내 대학들은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국대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과도 경쟁할 수 있으며 얼굴색과 말씨가 다른 세계 각지의 인종이 캠퍼스에 모여 지성과 화합의 화음을 나누는 글로벌 베이스캠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영국 에버딘 대학원과도 공동 석사학위제를 도입한다. 미주지역 20개 대

학을 비롯해 아시아 18개 대학, 유럽 8개 대학, 호주 1개 대학 등 세계 각지의 50여개 대학과 알찬 국제교류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매년 150명~200명 규모의 해외 탐방단을 만들어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개척정신을 배울 수 있는 뉴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준공을 본 국제학사는 대학의 발전의지를 담고 있다. 외국인 100여명을 수용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이를 계기로 국제 청소년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신설, 매년 50~150명씩 교육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교수진을 대폭 보강 2004년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 ■ 최상의 취업지원시스템

대학가는 현재 취업비상이다. IMF 이후 고질적인 청년실업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각 대학의 취업성과는 고교생의 입장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중요 잣대가 되었다. 취업의 성패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다. 건국대 역시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국 엘리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학점, 토익, 자격증을 검토해 매년 15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여름방학 동안 채용동향, 모의 면접, 채용정보 수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 교육한다.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90% 이상이 10대 기업, 외국계 기업, 금융권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엘리트 프로그램의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대학가에서 벤치마킹 모델로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